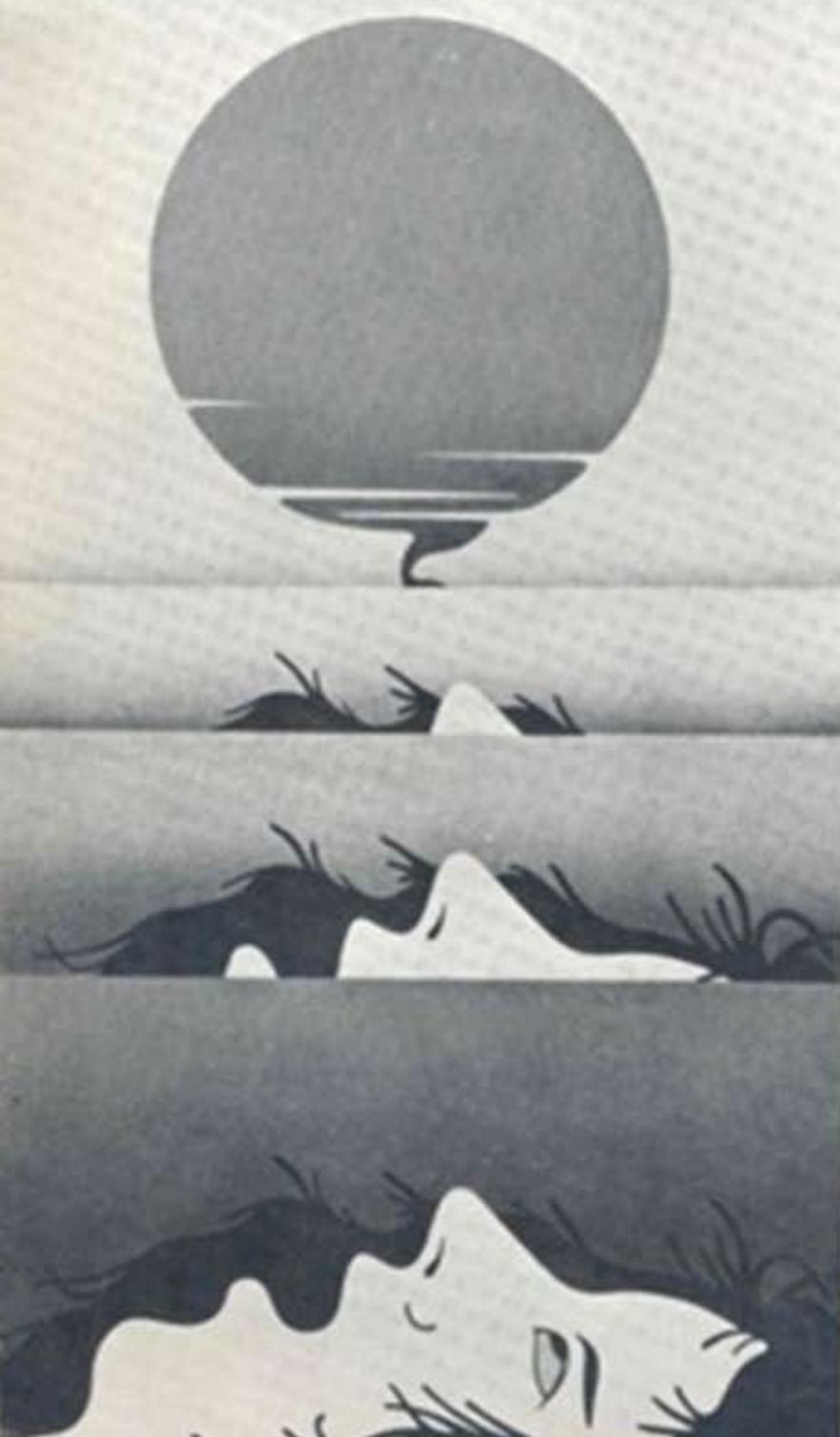


달맞이꽃

승대극회 제24회 가을 정기공연



근순중

석정병

기획 : 전황
연출 : 김작

승전대학교 학도호국단 문예부

장소 : 대학극장

일시 : 81년 11월 12일(6시)

13일(4시 6시) 14일(2시 5시)

격 려 사

총장직무대리 김주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大學입니다。知性과 더불어 大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創造와 藝術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崇田의 歷史와 함께 자라온 崇大劇會가 1981年 가을 정기 공연으로 大學劇으로는 드물게 創作劇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달맞이 꽃』이라는 이 작품은 우리 民族史 中에 가장 연민을 느끼게 하는 한 부분인 東學運動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민족운동에 대한 再照明을 보여주자는 것도 잊혀져가는 역사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하자는 것도 아니며 다만 연극이라는 작업을 통하여 삶의 목적과 사회의 통찰 인간의 정서를 익혀온 극회원의 애씀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끝으로 극회원들의 노력을 치하하는 바이며 이번 공연이 많은 이들의 참여속에 성황리에 마쳐줄 것을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企 劃 的 辭



뛰는 가운데 연극을 알려고 애썼다

우리들은 처음부터 창조되는

이 예술을 이해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흔히들 미리 예전하고 장담을 한다

처음과 끝

과연 무엇이 남을까?

이제 우리는 결과보다는 남다르게

열심히 하는데서 보람과

연극에의 열망을 더욱 가져야 하지 않을까?

오늘 이 작품이 공연 되기까지 여러면으로

도와주신 선배들과 그와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

극회장 전석근

작가의 辭

金炳宗



통곡의 歷史와 방관자의

고해 성서

지난 해의 南道 여행을 잊을수가 없다.

南쪽에 가서 나는 가을 햇볕속에 멀고 멀리 흘러 가는 江을 보았다. 조용히 흐르는 江은 문득 슬퍼도 슬퍼도 살아가던 그 어떤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었다. 그 적묘한 水面의 線워르는 스러진 무수한 빗발과 풍우와 통곡의 시간이 꿈처럼 흐르고 있었고 그 꿈의 피안에서 行旅의 나는 무심한 방관자로 서 있었다.

대둔산 일대로부터 몇개의 스케치를 끝내고 下山하던 길에는 우연히 비석 한개와 마주 치기도 하였다.

서글픈 吊鐘처럼 내리는 저문 햇살을 받으며 동학年 피와 목숨의 내력을 자연한 채 風化되어 가는 돌덩이는, 그러나 잡풀속에 무심하게 서 있을 뿐 적막하기 그지 없었다.

그렇다. 그럼 좀 그리려 내려 갔다가 뜻밖에 남쪽에서 나는 이름 모를 끌꽃 하나며 지던 나뭇잎 하나까지도 서글펐음을 고백한다.

젊은날의 내 작은 실패에 대한 연연과 한때는 나를 접착과 미망 속으로 빠뜨리기도했던, 혈흔처럼 남아 있던 몇몇 선병질적 형이상학 또한 부끄러움이었을뿐임도 고백한다.

전에는 막연히 역사란것이 품위있는 갈색 가구쯤 되는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내 둔감한 의식을 짜르고 그 深部를 응시하는 살아있는 눈이 있음을 알았을 때, 나는 역사도 역사이야기도 모두 무서웠다.

이 출극은 지난 여름으로부터 극단 「自由」측에 의해 꾸준히 논의가 되어 왔고, 공연의 준비 또한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나는 이 대학의 초연에 직업극단파는 또 다른 측면에서 기대를 걸어 본다.

나보다 훨씬 좋은 글을 쓰고, 내 편의 저 편에서 늘 나를 바라보고 있는 소중한 한 사람의 나의 빛과 더불어 책석에 앉아서, 이제 나는 젊은 숨결들이 담아내는 이 이야기들을 조용히 지켜보려 한다.

演出의 辯

CAST



갑령 이찬수



아비 김인보



사내 1 탈 1 망나니 박종현



연출 : 황정순

경침지남오호라
세상내께大地에
배때지비비면서
우 아 하 게。
마차바퀴에깔림
꽉물림반만병신됨
우 아 하 게
목사판
'처녀'
그것처럼 내 心情 뽀얗게 하는것은
아무래도 없는 거 같다.



포졸 1 장성수



포졸 2 강길호



감형관 탈 2 남자 1 오상범



이방 1 남자 3 강규광



남자 2 탈 3 이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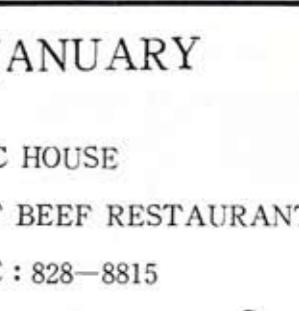
사내 2 탈 4 임호성



망나니 탈 최시영



아낙 김정희



여인 최영미



어미 지숙



JANUARY

PUBLIC HOUSE
ROAST BEEF RESTAURANT
PHONE : 828-8815



STAFF



무감 이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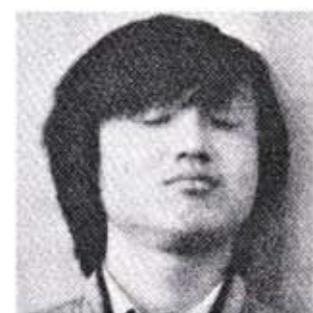
진행 서동철



무대장치 이영환



효과 을태웅



조명 이현우



분장 강영균



소품 김차선



의상 김윤희

RESTAURANT

아늑한 곳
쉼은

바쁘신 일파종 언제나 쉬어
가실수 있는 장소입니다

SHIM RESTAURANT Tel 827-0217

노량진역	
← 영등포	본동 →
<input type="checkbox"/>	
동작구청	상
<input type="checkbox"/>	
노량진	동
<input type="checkbox"/>	
쉼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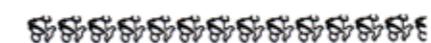
Coffee Shop

CAMPUS

Tea, Music & Mood

조용한 대화의 장소

승천대 정문앞 2층



소프트 렌즈 상담

승천대학교 지정 안경원

한독안경원

상도동입구 · 삼거리시장

BUS 정류장 앞

TEL. 827-7315

